

여수 '아이없는 停電' 韓電 안전불감증 탓

수백억 피해...LG칼텍스 등 손배소 움직임

지난 7일 발생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대형 정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의 안전 불감증과 한전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황당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정전사고로 수백억 원대의 산업피해와 함께 엄청난 '환경오염' 사태까지 빚어져 여수산단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여수화력은 "여수화력 정비를 맡은 한전기공 직원이 변압기 소화수 배관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중 알루미늄 사다리가 고압선에 닿으면서 '지락현상'(전류가 전선으로 흐르지 않고 땅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력과 관계된 공사를 할 경우는 합선이나 지락현상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절제 및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돼있다.

또 당시 이 한전기공 직원은 정비해야 할 변압기가 아닌 다른 변압기를 만졌을 뿐 아니라, 한전 측은 기업들에 발전소를 정비한다는 사전 통보

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10시 20분께 여수화력 정비작업 중 정전사고가 발생, 여수산단 내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SM공장, 삼남석유화학 등 5개 업체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정전으로 인해 석유화학공장의 10여개 공장에서 불완전 연소된 석유화학물질이 공장주변에 비오듯 쏟아졌고, 발암물질로 규정된 유기화합물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번 정전사고가 한전 자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한전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준비 중인 GS칼텍스 등 피해기업들의 배상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정전사고로 2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전측이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환경운동연합도 "여수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의한 정전사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등 5개 입주업체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중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한전과 여수화력발전처를 대검 환경침해범죄센터에 고발했다.

환경연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정전사고와 관련 한전과 여수화력발전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민주당 입당' 공무원 57명 고발

전남선관위, 검찰에...당비 대납 49명도 수사의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전남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에 당비를 선납해 주고 당원들을 모아준 49명이 수사의뢰되는 등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대규모 당비대납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당비 대납의 경우 대납자의 배후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해 파장은 시시각각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전남도당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입당여부와 당비대납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여 입당 사실이 확인된 13개 시·군 공무원 5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후원당원명부 등 시·군청 소속 공무원 1만5천377명

을 일일이 대조·확인한 결과 이들의 입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43명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선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한 목포시 공무원 2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또 민주당 전남도당 입당자 가운데 당비를 현금으로

선납한 2천514명을 대상으로 입당 및 당비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중 708명은 본인이 당비를 낸 사실이 없고, 입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입당원서에 이들의 추천인으로 돼 있는 4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고발과 관련 이형철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당비 대납자의 경우 필요하면 수사과와 특수부 인원을 차출해 배후가 누구인지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 참여' 꼭짓점 댄스 5·31 지방선거 광주YMCA 유권자운동본부와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꼭짓점 댄스를 선보이며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社告

'공동혁신도시 건설' 심포지엄

18일 오후 2시 나주문화예술회관

광주일보사와 전남대학교, 대한지리학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기관 지

-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
- 주 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주제발표
 - ▲제1주제 : 혁신도시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 권영섭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기본 방향과 과제 이정록 교수(전남대학교 지리학과)
 - ▲제3주제 :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시민의 역할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중국통상학과)
- 토 론 자 : ▲김준우 전남대학교수 ▲이상준 동신대학교수 ▲김휘영 환경그룹 부설 세계도시연구소장 ▲김재규 건설교통부 혁신도시팀장 ▲조경완 광주일보 논설위원 ▲이현주 국토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주 최 : 光州日報社 전남대학교 대한지리학회
- 후 원 : 광주문화방송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건설 시민운동본부

제2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 4월 14일 바깥 ◀
 www.boseongmarathon.net

제51회 호남예술제
 ▶ 4월10일~18일 접수 ◀
 www.kwangju.co.kr (호남)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후원학원 창학50년 역사기념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5000-3
 새롭고 담겨있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상담전화 062-9551 ▶ T.062-360-5000

국가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상담전화 02-7700-7200 ▶ T.02-7700-4802

달라이 라마 "광주 방문하고 싶다"

노벨상 정상회의 참석 여부 주목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오는 6월 15일~17일 열리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강력한 참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가 최근 광주정상회의의 측에 초청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6월 광주방문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초청장 답신에서 "기꺼이 초청을 받아들인다"며 "한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면 국제적 협력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

인생의 상회 - 비움씨
 www.yuhan.co.kr

2배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 **하루 2알 비움씨**를 바칩니다!

누구보다 아홉 일찍 출근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아침, 저녁 하루 2알

누구보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 비움씨

비움씨에 함유된 커티닌과 티타민은 수분생태인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치점 상담실 080-025-1881 / 대구 053-450-4573 / 광주 062-752-2616 / 서울 062-928-5000 / 대전 042-067-9000